

2025학년도 연세대(서울)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면접유형 안내

1. 전년 대비 변경 사항

2025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면접유형(단, 의예과 제외)이 다음과 변경됨에 따라 면접구술시험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면접 유형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

2. 2025학년도 출제 방침

- ▶ 모집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인문·통합 계열 면접에서 과학적 사고가 요구될 수 있고, 자연 계열의 면접에서 인문·사회 관련 분야 지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시문 중심으로 면접문항을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속하는 지문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활용합니다. 제시문의 출처에 관한 지식을 묻지 않고,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평가합니다.
- ▶ 여러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각 제시문의 논리를 읽어내는 수렴적 사고와 제시문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확산적 사고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 ▶ 각 문항에 대하여 수험생은 자신이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이 문항에 제시된 것 이외의 전문용어나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없도록 면접문항을 출제합니다.
- ▶ 2024학년도 기회균형전형 면접구술시험 출제 기초를 유지하며, 다음의 예시 문항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 예시 문항 안내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법에 관해 연구할 때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성공하면 그 후에 임상 시험을 시행한다. 과학자 중에는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있다. 배리 마샬 박사는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위에서는 위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샬 박사는 위궤양과 위염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이를 동물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1984년 배양 중이던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셔 버렸다.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균을 삼키자, 위산 분비가 멈추고 구토가 나면서 위염에 걸린 것이다. 이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먹자 천천히 병이 나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나]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사람들을 끌기 시작했다. 이들은 열이 나도 해열제 쓰지 않기, 아토피에 연고는 물론 보습용 로션도 바르지 않기, 백신 맞지 않기 등 현대의학의 원칙을 부정하는 말을 퍼뜨리며 세를 불렀다. 대안으로 발효식과 해독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카페 회원들이 모여 장을 담그는 행사를 열고, 숯가루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회원이 계속 늘어난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서사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하면 아토피는 피부에 열이 쌓여 생긴다. 따라서 땀을 내어 열을 빼야 한다. 긁어서 큰 상처가 나면 땀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나므로 열이 더 잘 빠져나간다. 따라서 긁어도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만든다”거나 “엄마들은 직장에 다니라, 아이를 키우라 정신이 없다”는 감성 어린 위로도 적절히 섞었다. 햇빛 많이 쬐기, 밖에서 많이 뛰어 놀기 등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아 원칙도 함께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엔 황당한 것 같다가도, 심지가 곧고 독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다]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미치지 않아도 누구나 음모론적인 얘깃거리에 귀가 솔깃해진다. 음모론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는 인간의 강박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끊이지 않을까?’라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음모론은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음모론자의 상상 속에서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역사적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음모론의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것이 아무리 큰 폐해를 낳더라도 말이다. 악한 일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회적 변수들의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사악한 자들 때문에 일어난다.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당신은 악당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라] 빨간색 전구와 초록색 전구가 나란히 있다. 두 전구는 한 번에 하나씩 계속 깜박인다. 빨간 전구는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자주 켜지지만, 매 순간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두 전구가 점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후, 이제 관찰자는 매번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 예측해야 한다. 실험 결과, 사람보다 쥐가 이 게임을 더 잘했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켜질 확률이 높은 전구만 오로지 선택한다. 성공 보상으로 먹이를 얻을 때, 쥐는 빨간 전구를 고르면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과거에 가장 자주 일어났던 옵션을 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80%에 가까운 성공 확률을 보인다($0.8 = 0.8 \times 1 + 0.2 \times 0$). 하지만 사람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맞춰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빨간 전구가 켜질 거라는 선택을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많이 한다. 이 전략의 문제점은 어떤 전구가 다음에 켜질지가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패턴이 없다고 말해줘도 사람은 패턴을 알아내려고 애쓴다. 그 결과, 예측에 성공할 확률은 68% 정도에 그친다($0.68 = 0.8 \times 0.8 + 0.2 \times 0.2$).

[문제 1]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0점)

[문제 2] 제시문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40점)

가. 출제 의도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길 원한다. 세상의 일에는 체계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느낀다. 인과적인 믿음은 문명 발전에 동력이 되지만, 종종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면접 문항은 세상 이치에 관한 여러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특징들을 비교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은 자연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문제 탐구’는 주제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에 관한 지문을 활용하여 수험생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제시문 해설

- 제시문 <가> 교과서 『생활과 과학』(전영석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 위장병의 원인을 찾으려는 과학적 탐구 사례를 소개한다.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거부하고 박테리아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입증하는 험난한 과정을 기술한다.
- 제시문 <나> 강병철, “안아기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의료정책포럼 2017
 - 소위 ‘자연주의 육아’의 논리를 소개한다. 아이를 건강하게 하는 원인과 아프게 하는 원인을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 제시문 <다> 조나단 갓셜, 『The Storytelling Animal』
 - 음모론이 대중의 관심을 쉽게 끄는 이유를 설명한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의 원인을 악당들의 모략에서 찾는다. 복잡한 변인 관계를 단순하고 직관적인 설명으로 대체한다.
- 제시문 <라> 마이클 가자니가, 『뇌로부터의 자유』
 -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려는 사람의 경향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다. 두 전구가 켜지는 순서가 일정한 확률 조건에서 매번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람은 규칙을 찾으려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전구가 켜지는 순서를 예측하려고 시도한다.

다. 문항 해설

[가], [나], [다] 제시문은 모두 원인을 추론하여 변화를 설명하려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글이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일을 통제하거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가]는 박테리아가 위장병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소개한다. 제시문 [나]의 자연주의 육아법은 아이를 아프게 하는 원인과 건강하게 하는 원인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나쁜 일의 원인을 악당들의 존재에서 찾는 음모론에 관해 논한다.

제시문 [가]는 다른 제시문과 다르다. 제시문 [가]의 마샬 박사는 과학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원인과 결과를 밝혀낸다. 그 과정은 때때로 실패에 이르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할 만큼 번거롭고 불편하다. 그에 비해 제시문 [나]의 자연주의 육아법과 제시문 [다]의 음모론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제시문 [나]), 명쾌하고 단순한(제시문 [다]) 설명을 선호한다. 자연주의 육아법과 음모론은 직관과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확보한다. 두 입장이 추구하는 ‘세상에 관한 설명’은 인과적 진실보다 감정적인 위안인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라]에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항상 규칙이 있을 거라 믿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한 원인이 없이 ‘우연히’,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나는 현상에서 사람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우연한 일에서도 체계를 알아내려는 욕구를 느낀다. 전구가 켜지는 순서에 원칙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순서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 예측한다. 가령, ‘아까 초록, 빨강 다음에는 빨강이었어. 방금 초록과 빨강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빨간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야’라는 식으로 판단한다. 사람과 달리 동물에게는 원인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없다.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때는 패턴을 무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